

Call of Cthulhu의 저작권은 Chaosium Inc.에 있습니다. ©1981, 1983, 1992, 1993, 1995, 1998, 1999, 2001, 2004, 2005, 2015; 전권보유. 또한 Call of Cthulhu 7th Edition에 기반한 '크툴루의 부름' 한국어 번역판의 저작권은 도서출판 초여명에 있습니다. ©2016; 전권보유. 이 작품은 비공식 2차 저작물이며, 원작자와 번역자의 권리를 침해할 의도가 없습니다.



(세션카드 커미션: 7H 님/ @ 7H_design)

[스토리 개요]

유명 수학학원 원장 윤운수 씨의 사망 이후, 유서와 함께 여러 서류가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장기기증 증서에 왜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거죠?
윤운수 씨, 그거 당신 장기도 아니잖아!

[시나리오 정보]

- 약칭은 [시시날날]입니다.
- 형식: 타이만(다인, 1인 플레이 개변 가능), 레일로드
- 장르: 호러
- 플레이 타임: ORPG 기준 2~3시간. 짧고 간단합니다.
- 난이도: 키퍼링 ★★☆☆☆ / 플레이 ★★☆☆☆
- 권장/추천 기능: 대인 기능 (NPC와의 대화가 많습니다.), 전투 기능
- 광기 및 로스트 가능성: 有
- 추천 관계: 없음.
- 배경: 현대 한국 세계관을 상정하였으나 개변 가능합니다.
- **Trigger Warning:** 투병, 신체 훼손, 살인, 사망, 상해
- 모든 스토리 및 설정 개변 가능합니다. 개변된 시나리오 배포는 불가능합니다.
- 룰북 없는 키퍼링을 금합니다.
- 공계에서의 스포일러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 ‘현대 한국 호러 **TRPG** 시나리오 합작’ 참여작입니다.

[아래로 시나리오 진상이 이어집니다.]

[진상]

윤윤수 씨와 윤병원 씨는 사이좋은 부자였습니다. 윤윤수가 불치병에 걸려 시한부가 되었을 때도, 그가 신화서인 데 베르미이스 위스테리이스(p.228)를 읽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병상에 누워 하릴없이 책이나 뒤적이던 윤윤수는 독일 유학 시절 짐 속에 섞여 있었던 낡은 책을 꺼내 듭니다. 운 좋게도(또는 운 없게도) 책 속에는 친절한 누군가가 라틴어로 적힌 책의 내용 일부를 영어로 번역해 둔 종이가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무엇이든 열심히 탐구했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그는 오랜 시간 끝에 책에 적힌 주문 중 몇 가지를 이해하는 데에 성공했고....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많은 사실을 안 나머지 이성을 잃게 된 그가 아버지인 윤병원 씨에게 정신 이전 주문(p.260)을 사용한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이 그의 이성보다 강했으니까요. 아버지의 육체가 기억하는 지식 때문이었을까요? 주문을 위해 이성을 더 사용한 윤윤수는 광기-수술광 상태에 빠집니다. 나이가 든 아버지의 몸 대신 새로 자리 잡을 몸을 찾기 시작한 것이지요. 윤윤수는 자신의 학원에 다녔거나 알바를 했던 사람들의 신상을 모아 가짜 장기기증 증서를 만들어냅니다.

(탐사자가 학원에서 수업을 듣거나 아르바이트하지 않는다면, 윤윤수가 윤병원 병원에 방문했던 환자들의 기록을 사용했다고 해도 됩니다. 탐사자가 병원에도 가지 않는다면.... 수호자의 개변 실력을 믿겠습니다.)

증서를 받은 이들이 병원으로 오기를 유도하여 각각의 장기를 모아 완벽한 몸을 만들어내고자 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시도가 성공할 리 있나요. 병원에 가득 차게 된 건 시체 조각들뿐이었습니다. 잠깐이지만 이성을 되찾은 윤윤수는 피로 물든 메스를 내려놓고 차선의 선택을 합니다. 살아 있는 사람 중 가장 건강한 이에게 정신 이전을 다시 시도한 것입니다.

결국 그가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며 기묘한 장기기증 증서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듯했으나.... 완전히 사라진 줄만 알았던 아버지의 정신이 본래 몸에 남아 있었기에 일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아가 완전히 부서진 채로 티끌만큼 남아 있던 윤병원의 정신은, 윤윤수가 다른 몸으로 떠나고 나자 죽어가는 몸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갇힌 피해자들을 붙잡아 생전 기억 그대로 다시 수술하게 됩니다. 수술이 끝난 후의 환자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아들의 새로운 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르지요. 눈물 나는 부성애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작 새로운 몸을 얻은 자식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유유히 빠져나가려는 윤윤수(몸은 다르지만요)를 발견한 윤병원은 살짝 손질을 마치고 그를 다시 잡아 가둡니다. KPC와 PC가 새로 잡히기 전까지요.

KPC와 PC가 윤병원 병원 지하에 갇힐 때쯤, 윤윤수는 이미 살아남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과연 그가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일까요? 천만의 말씀. 가련한 인질로서 피해자를 가장하고 있던 그는, 싸움이 끝나기 직전 여러분의 몸을 빼앗으려 할 겁니다. 정신 이전도 이미 그에게 익숙해진 주문이거든요.

과연 KPC와 PC는 윤윤수의 사악한 계획을 알아차리고 장기를 빼앗기지 않은 채 병원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6개월 전	1주 전	2일 전	오늘
윤윤수의 투병 시작	윤윤수가 윤병원에게 정신 이전 주문 사용, 가짜 장기기증 증서를 보내기 시작	윤윤수는 김여운의 몸을 차지하나 윤병원에게 불잡힘	PC들에게 증서 도착

KP 정보는 이 색으로 쓰입니다.

1. 도입

평범한 토요일 오전입니다. PC는 편지함 안을 확인합니다. 밥을 먹던 와중일 수도, 어딘가로 갔다가 돌아오는 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편지함 안에 편지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겉을 살펴보면, ‘윤윤수 수학학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얼마 전까지 이 학원에 다녔던가요, PC? 봉투는 평범합니다. 마치 학원에서 집으로 통지문을 보낼 때 사용하는 것처럼 생겼어요. 신기하게도 봉투에는 PC의 이름 석 자가 적혀 있습니다. 주소도 PC의 것입니다. 보낸 이는 윤윤수 수학학원의 원장 윤윤수 씨입니다.

봉투를 열어 안을 확인해 봅시다. 뭐가 들어있을까요? 성적표? 안내문? 모두 아니었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종이는.... 장기기증 증서입니다! 쪽지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장기기증 증서

하얀 종이에 적혀 있는 증서입니다. 자세히 읽어 보면, PC가 윤병원 씨에게 장기를 기증하기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 등록했었고.... 대상자로 선정 승인이 완료되어서.... 다음 주면 적출할 수 있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죠, 윤윤수 씨? 누구 맘대로 등록해요? 그거 당신 장기도 아니잖아!

장기기식 의료기관은 윤병원 병원입니다. 병원과 국립 장기이식 관리기관의 직인이 각각 찍혀 있어요. 병원장의 이름은.... 윤병원? 그러니까 윤병원 병원 병원장 윤병원 씨의 날인이 선명히 보입니다. 병원장에게 장기 이식을 해도 되긴 한 건가요, 이거?

이를 후에.... 수술이 예정된 날까지 병원으로 내원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기증하기로 한 장기는 1d6을 굴려 신장, 간장, 체장, 소장, 폐, 골수 중 하나로 결정합니다.

전부 조작된 서류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타인에게 기증하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롭고 구체적인 심사가 필요할뿐더러.... 애초에 등록도 하지 않은 사람을 승인할 수 있을 리 없죠.

쪽지

손 글씨가 적힌 작은 쪽지 한 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아버지는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윤수 드림.

이제 어떻게 하나요, PC?

윤윤수에 대해 찾아본다(윤윤수 수학학원에 대해 찾아본다)

아무래도 이 서류를 윤윤수 수학학원에서 보냈으니, 이곳에 적힌 윤윤수 씨는 수학학원 원장이겠죠? 사실, PC는 윤윤수를 직접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윤윤수 수학학원은 대형 학원이고, 원장은 학원의 대표 격이지 따로 출강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유명 학원을 세운 사람이니만큼 몇 번 방송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근황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찾는다면 자료조사 판정. 성공 시 윤윤수가 몇 달 전부터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어려움 이상 성공 시 윤윤수가 얼마 전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을 법한 사람을 찾는다면 대인 기능 판정으로 대체해도 되겠죠.

윤병원에 대해 찾아 본다(윤병원 병원에 대해 찾아 본다)

대형 병원입니다. 장기이식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윤병원 병원의 원장인 윤병원에 대해 조사한다면 자료조사 판정. 성공 시, 몇 년 전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을 하나 발견합니다. 보아하니 윤병원 원장이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 의료 자문 역으로 나왔던 것 같네요. 관찰 판정 어려움 이상 성공 시, 윤윤수와 어쩐지 닮은 얼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윤병원이 어디가 아프다는 소식은 찾기 어렵네요.

국립 장기이식 관리기관에 연락한다

‘모든 내선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전화가 끊깁니다.

윤윤수 수학학원에 연락한다

서류를 보냈다고 추정되는 곳은 윤윤수 수학학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학원에 전화를 걸어보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그곳에 다닌 적이 있다면, 주말에도 수업이 있는 학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 전화 상대

‘안녕하세요, 윤윤수 수학학원입니다.’ 젊은 남성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옵니다.

안타깝게도 상대는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하여 아는 사실이 많지 않습니다. 또한 학원의 구조나 출근한 사람 등 학원에 관련된 사실을 물어보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원의 학생, 또는 학부모인 척을 하거나 대인 기능 판정을 사용해야겠지요.

전화 상대가 알고 있는 사실

- 주말에는 특강만 운영되어, 출근하는 강사는 2명뿐이다.

- 학원에서 보내는 서류는 전부 지하의 문서실에서 관리한다.
- 지금은 따로 수업이 없는 준비 시간이다.
- 자신은 아르바이트생이며, 원장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
- 얼마 전에 죽었다고 듣기는 했다.

윤병원 병원에 연락한다

당신을 부른 병원에 직접 연락해 보는 게 좋겠죠. 오늘은 주말이라 상주하는 인원이 몇 없겠지만 일단 전화를 걸어봅니다.

- 전화 상대
'안녕하세요, 윤병원 병원입니다.' 단조로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여성의 목소리입니다. 지금은 일부 진료 및 응급의료센터만 운영 중인 듯합니다. 장기이식센터는 2층에 위치한다고 하네요. 장기기증에 관해 묻는다면, 해당 건은 평일에 장기이식센터로 직접 연락해달라고 합니다.

사실.... PC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도 장기를 빼앗길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뭔가 착오가 생겨 PC가 수술 대상자가 되었다고 해도,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거든요. ¹PC가 범조인이거나, 법률 판정에 성공한다면 바로 알아차릴 수도 있겠습니다....

PC가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단순히 **ED.0**으로 보내주어도 되지만, 세션을 위해 잡아놓은 시간이 아까우신 분들은 **EVENT**. 해피엔딩인가 싶었지만.... 을 진행해 주세요.

PC가 집 밖을 나선다면 **2**. 조사로 이어집니다.

더 자연스러운 전개를 원하신다면 **KPC**를 먼저 지하실로 보내버립시다. **KPC**가 **PC**에게 전화를 걸어 '윤병원 병원에 갔다가 갇혔다. 구해달라'는 말을 하면.... 착한 **PC**는 조사를 해주겠죠? (경찰을 보내는 건 의미 없습니다. 장기기증 증서를 보유 중이지 않으면 관문을 통과할 수 없으니까요.)

또는 병원에서 먼저 전화를 걸어, '서류에 서명이 필요하니 병원으로 와 달라'라고 요청해도 되겠죠.

EVENT. 해피엔딩인가 싶었지만....

어쩐지 찜찜합니다. 기묘한 편지를 받은 이후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니요? 위조된 것이 틀림없는 서류는 뒤로 하고 일상생활을 이어 나가려 하는데.... 그날 밤, 누군가 갑작스럽게 **PC**의 뒤를 덮칩니다! 이성 판정(0/1).

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그가 누군지 확인하기도 전, 의식은 서서히 멀어집니다.... **3.** 지하실로 이어집니다.

수술할 사람이 찾아오지 않자, 윤병원이 직접 밖으로 나가 **PC**와 **KPC**를 납치한다는 설정입니다. 해당 이벤트는 **PC**의 조사가 막힌 상황에서 강제로 이야기를 이끌고 싶을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얌!

2. 조사

윤윤수 수학회원과 윤병원 병원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윤윤수 수학회원

봉투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면.... (**PC**가 사는 지역의) 어느 학원가 한가운데로 건물 하나가 보입니다.
윤윤수 수학회원입니다. 문 앞에 도달한다면 **KPC**를 마주칩니다.

1인 플레이로 진행하려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KPC와의 대화

수학회원 앞에서 당신을 만난 **KPC**는 깜짝 놀란 표정입니다. 왜 주말인데 이곳에 왔냐고 묻네요. **KPC** 또한 **PC**와 같은 처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손에 장기기증 증서를 들고 있으며, **PC**보다 더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함께 학원을 둘러봅시다!

'-+장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카운터(1층)

자동문을 지나치면 무표정으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 보입니다. 그의 뒤에 계단이 보입니다.

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려 하면, 아르바이트생이 그를 가로막습니다. 지하 1층은 직원만 출입 가능하다고 하네요. 대인기능 판정에 성공하여 계단을 사용할 경우 지하 1층으로 갈 수 있습니다. 몰래 간다면 은밀행동 판정을 사용해도 됩니다. 때려눕히겠다면 뭐.... 말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후에 경찰서를 탐험해야 할지도...?

아르바이트생과의 대화

기본적으로 전화로 대화할 때와 비슷합니다. 학원에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판정이 필요합니다. 봉투를 보여주면 학원의 것이 맞다고 하나, 안에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네요.

아르바이트생이 알고 있는 사실

- 주말에는 특강만 운영되어, 출근하는 강사는 2명뿐이다.
- 학원에서 보내는 서류는 전부 지하의 문서실에서 관리한다.
- 지금은 따로 수업이 없는 준비 시간이다.
- 자신은 아르바이트생이며, 원장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
- 얼마 전에 죽었다고 듣기는 했다.

아르바이트생이 모르는 사실

- 윤윤수가 준비한 계획 전반에 대해
- 윤윤수의 아버지가 윤병원이다.

계단 앞에는 층별 안내문이 적혀 있습니다.

- 지하 1층(문서실, 창고, 방재실)
- 1층(카운터, 행정실)
- 2층(강의실 201~215호, 인쇄실)
- 3층(강의실 301~315호, 강사 휴게실)
- 4층(강의실 401~415호, 원장실)

4층짜리 건물이라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행정실

평범한 사무실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말이라 한 명만 출근했는지, 행정 직원 1명이 앉아 있습니다.

행정 직원과의 대화

주말에 출근해서 기분이 좋지 않은 직장인입니다. 학원에 관련된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대인 기능 판정이 필요합니다.

행정 직원이 알고 있는 사실

- KPC와 PC의 주소로 원가를 보낸 적은 없다.
- (받은 증서를 보여줄 경우) 자신은 보낸 적 없는 서류다. 우리 학원에서 간 게 맞나?
- 비슷한 이유로 학원을 찾아온 사람이 몇 더 있었다.
- 일주일 전 윤윤수가 사망했다.

- 지금까지는 그의 아버지인 윤병원이 대신 학원을 관리하고 있다.
- 윤병원의 전화번호

윤병원에게 전화를 건다

통화음이 이어진 후, 툇딱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보세요?” PC가 물어도 대답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네요.

윤병원은 이미 이지를 잃었기 때문에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지하 1층

아르바이트생의 눈을 피해 지하 1층으로 들어서면, 어쩐지 어두침침한 복도가 여러분을 반깁니다. 문서실, 창고, 방재실에 차례대로 가볼 수 있습니다.

-문서실

윤윤수 수학학원에서 발송하는 여러 문서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온갖 문서가 뒤섞여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도둑이라도 든 건지.... 자료조사 판정에 성공한다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적힌 장기기증 증서를 발견합니다. (KPC와 PC의 것은 없습니다. 이미 보냈으니까요.)
어려움 이상 성공 시 후보 목록을 발견합니다.

- 후보 목록
스프레드시트 화면을 출력한 종이입니다. KPC와 PC의 이름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창고

청소 도구와 여분의 책상, 의자가 놓여 있는 창고입니다. 별다른 물건을 찾을 수는 없겠습니다.

-방재실

방재실(감시제어반)이라는 단어가 문 앞에 적혀 있습니다. CCTV와 소방 시설을 관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 관리자가 앉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CCTV 화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 관리자
지루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중년의 여성입니다. 방재실은 관계자 외 출입 금지이니만큼, 대인 기능 판정에 성공하지 않으면 출입을 막고 PC 일행을 1층으로 올려보냅니다. PC가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CCTV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지하에 있는 CCTV가

망가진 상태라고 하네요. 곧 수리할 예정이라고요.

- **CCTV** 화면

건물 전체를 비추고 있는 화면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하를 보여주는 화면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층

계단을 따라 올라오면, 평범한 학원에 있을 법한 교실과 인쇄실이 보입니다. 별다른 건 없습니다.

-3층

마찬가지로 평범한 학원에 있을 법한 교실과 강사 휴게실이 보입니다.

-강사 휴게실

창문을 통해 햇살이 잘 들어오는 휴게실입니다. 책상 위 여러 대의 컴퓨터가 놓여 있습니다. 컴퓨터는 전부 잠겨 있지만, 키보드 중 하나의 밑면에 비밀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강사의 컴퓨터

특별한 건 없지만, 메신저 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운 좋게도 잠겨 있지 않네요.

- 메신저 기록

임시 원장 윤윤수 아버지라며?

○○ 병원장인데 새로 구할 때까지만 겸한대

근데 개뚫같이 생기지 않았나 말투도 비슷함 ㅋㅋㅋ
좀 제정신 아닌 것 같긴 한데

자식 잃었으니 어쩔 수 없지 뭐



📎 메신저기록_시시날날.png

-4층

계단을 4층이나 오르니 좀 힘드네요. 교실과 원장실이 있습니다.

·원장실

전형적인 원장실입니다. 책상, 의자, 화분, 컴퓨터.... 한쪽에는 긴 소파가 놓여 있습니다.

컴퓨터

잠겨 있지 않습니다. 특이하게 마우스가 키보드의 왼쪽에 놓여 있습니다.

윤윤수는 왼손잡이입니다.

접속 기록을 확인한다

6개월 전부터 멈춰 있다가 1주 정도 전에 접속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메일함을 뒤진다

자료조사 판정. 성공 시 여러 메일을 통해 윤윤수가 6개월 전 투병으로 인해 원장 일을 잠시 멈췄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바탕화면을 확인한다

메모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파일 제목은.... 새 메모.txt입니다.

- 새 메모.txt

**수술수술수술수술수술수술수술수술수술수술수술수술수술수술수술수술수술수술수술새몸새몸새몸새몸새
몸새
몸새몸새몸새몸**

단어의 나열로 내용은 끝이 납니다. 음, 기분 나쁜 내용입니다....

긴 소파

손님이 앉아 있기 위한 소파로 보입니다. 쿠션 틈으로 윤병원 병원 출입증이 끼어 있습니다. 그냥 주셔도, 관찰 판정을 통해 주셔도 됩니다. 출입증에는 윤병원의 이름과 사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학원을 전부 확인한 PC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PC가 조사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ED.0**으로 이어집니다.

이야기를 이어 나가고 싶다면 **EVENT.** 해피엔딩인가 싶었지만.... 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윤병원 병원

‘윤병원 병원’이라는 간판과 함께 커다란 건물이 보입니다. 꽤 큰 병원입니다. 학원보다 병원에 먼저 방문한다면, 이곳에서 **KPC**를 마주합니다. 장기이식센터에 가려면 본관으로 가야겠습니다.

-1층

주말이지만 진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다니는 의사와 간호사, 직원도 종종 보입니다. 수납처와 엘리베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납처

원무과 직원이 앉아 있습니다. PC의 장기기증 증서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사실은 따로 없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몰래 엿듣는다면 듣기 판정. 성공 시, 최근 병원장 윤병원의 상태가 이상해졌다는 말이 들립니다. 일주일 전부터도 제정신으로 보이지 않았는데, 2일 전부터는 갑자기 사라져서 아예 출근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어디로 간 걸까요?

판정 실패 시에도 2일 전 윤병원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알려주세요.

-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옆 벽에 층별 안내도가 붙어 있습니다. 장기이식센터는 2층에 있습니다. 다만 문이 잠겨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장기이식센터

오늘은 센터가 닫는 날인 듯합니다. 문이 잠겨 있고, 한쪽에 출입증을 태깅할 수 있는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열기 위해서는 출입증을 얻거나, 전기수리(전자기기) 판정을 통해 장치를 무력화해야 합니다. 장치를 건드리면 보안업체가 달려오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PC 일행은 사라진 뒤일 테니까요.

출입증을 얻는 경로는 수호자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1층을 돌아다니는 관계자들에게서 훔치거나, 병원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 찾아내거나.... 다양한 판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라면 앞서가는 관계자가 출입증을 떨어뜨리게 해도 되겠지요.

높은 확률로 PC는 장기기증 증서를 챙겨왔을 겁니다. 장기기증 증서를 챙긴 채로 열린 문을 통과하면 머리가 깨질 듯한 느낌과 함께 **3. 지하실**로 이동합니다.

PC가 증서를 챙기지 않았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KPC는 가지고 있으니까요! 증서가 없는 PC와 증서를 가진 KPC가 같이 문을 넘어간다면, KPC가 들고 있던 증서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KPC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습니다. 당황한 PC가 증서를 집어 들고 문을 오간다면 역시 **3. 지하실**로 이동합니다.

윤윤수가 관문 생성 주문(p.254)을 통해 만들어낸 관문입니다. ‘가짜 장기기증 증서’가 관문의 열쇠이기 때문에, 증서를 들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냥 텅 빈 장기이식센터만 발견합니다. 원래 증서는 사람과 함께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깜짝 놀란 KPC가 이동과 동시에 증서를 놓쳐버렸습니다.

3. 지하실

고개를 들어 보면, 문이 열리며 보았던 풍경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여러분을 반깁니다. 눈앞에 있는 건 깔끔한 병원 내부의 모습이 아니라.... 사방에 새까만 얼룩이 묻어 있는 낡은 복도입니다. 곰팡이의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또는 습격 이후 정신을 차려 보니 복도였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KPC를 여기서 처음 마주하겠군요.

PC 일행은 모두 마력과 이성을 1씩 차감합니다. (관문의 비용입니다.)

...조금 전까지 2층의 문을 지나지 않았던가요? 당황한 PC가 주변을 둘러본다면 관찰 판정. 성공 시, 벽에 묻어 있는 얼룩이 전부 핏자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성 판정(0/1).

왔던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 뒤를 보면, 단단한 돌벽 위로 그려진 괴상한 무늬를 마주합니다. 위를 쳐다보아도 탈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체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된 거죠?

관문으로 돌아갈 때의 열쇠는 장기기증 증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PC들은 왔던 곳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걸면 잡음이 끼기는 해도 잘 연결됩니다. 물론 PC들이 자신이 마지막으로 있던 위치를 말한다 해도 찾아올 수는 없습니다. 관문의 열쇠인 장기기증 증서가 없으니까요.

복도를 따라 앞으로 나아갈수록 시야는 좁아지며 불쾌한 악취가 숨을 타고 스며듭니다. 관찰 판정에 실패한 PC는 무언가에 발이 걸려 넘어집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길목을 가로막은 물체를 살펴보면.... 잘린 다리입니다. 아니, 다리, 손, 손목, 팔.... 인간의 조각이었던 것들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이성 판정(1/1d4+1).

시체 조각을 살펴본다

서서히 썩기 시작한 신체 부위들입니다. 주인이 제각각인 듯 보입니다. 같은 쪽의 손도 발견할 수 있네요. 단면을 보면 깔끔합니다. 날카로운 칼로 잘린 것처럼 보여요. 관찰 판정에 성공한 PC는 조각 사이에서 다른 조각에 비해 깔끔히 잘리지 않은 몇 개의 조각을 발견합니다. 오래됐는지 심하게 썩어 있습니다.

윤윤수가 윤병원의 몸에 있을 때는 칼질이 서툴러 제대로 자르지 못했습니다.

시체 조각은 여러분을 안내라도 하듯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지는 안쪽으로 다가서자, 바닥에 놓인 부위도 달라집니다. 간, 심장, 폐, 위치를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뿔조각들까지.... 인체 모형을 부수어 흩뿌려 놓으면 비슷한 모양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저도 모르게 악취에 순응한 코를 틀어막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면 듣기 판정. 성공 시 멀리서 철창을 흔드는 듯한 소리가 들립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몇 사람의 인영이 눈에 들어옵니다. 필사적으로 덜컥거리는 소리를 내는 여성 한 명과.... 쓰러진 남성 한 명입니다.

남성의 몸을 뒤집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죽었다는 사실어요. 의료 판정 성공 시 사망 원인은 과다 출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죽은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용없어요. 그는 이미 죽었어....”

철창을 붙잡고 있던 여성이 뒤를 돌아 여러분에게 말을 겁니다. 겁을 먹었는지 얼굴이 눈물과 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이쪽도 복부에 상처를 입은 건지 얼굴이 새파랗습니다. 그는 왼손으로 담배를 입에 문 뒤 라이터로 불을 지피려 하지만, 잘되지 않자 내던지듯 라이터를 떨어뜨립니다. 담배를 든 쪽 손목에 찬 시계는 피로 젖어 문자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PC들은 창살 너머를 살펴보거나, 여성(김여운)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창살 너머를 살펴본다

두꺼운 창살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건너편 또한 긴 복도로 이어져 있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요. 창살 너머를 살핀다면 관찰 판정. 성공 시 수술대, 열쇠, 책을 발견합니다. 실패 시 책을 제외한 나머지를 발견합니다.

수술대

병원에 있을 법한 수술대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살점 조각과 피로 새빨갳게 물들어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 평범한 수술이 행해진 건 아닌가 봅니다.

열쇠

수술대 아래에는 열쇠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철창에는 문이 하나 달려 있으니, 그것의 열쇠인가 봅니다.

책

한쪽 벽 근처에 놓여 있는, 두꺼운 가죽 표지의 낡은 책입니다. 멀리서 보기만 해도 불길한 기운이 새어나옵니다.

김여운(윤윤수)

정신력(현재) 55

이성(현재) 40 - 데 베르미이스 뤼스테리이스를 연구하는 데 10, 윤병원에게 정신 이전을 시도하는 데에 5, 김여운에게 정신 이전을 시도하는 데에 5를 사용하였습니다.

체력(현재) 4 마력(현재) 7 근접전(격투) 25 민첩 60 회피 30 심리학 30

사용 가능 주문: 정신 이전, 관문 생성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 외 수치는 자유입니다.

현재 ‘장기적 광기-편집광’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생존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20대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청바지에 후드집업을 입고, 왼손에는 손목시계를 찬 평범한 옷차림입니다. 김여운의 원래 직업은 대학생이며, 전공은 수호자 재량으로 정해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정신 이전’ 주문을 통해 윤윤수가 몸을 차지한 상태입니다. 몸에 남아 있는 기억과 조사했던 신상을 통해 몸의 주인인 척하고 있지만, 자세한 전공 지식이나 직접 겪은 일 등은 모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묻는다면 얼버무립니다.

아래 판정을 통해 윤윤수의 정신이 김여운의 몸속에 있다는 힌트를 줄 수 있습니다.

난이도 또한 수호자 재량으로 정해주세요.

- 심리학, 정신분석 판정(어쩐지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음)
- 오컬트 판정(몸과 영혼의 주인이 다름)
- 관찰 판정(어쩐지 자신의 몸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음)

김여운과의 대화

- 자신은 4일 전 병원에 방문했다가 윤병원에게 붙잡혔다.
- 여기 있으면 죽고 말 거다. 저 미친 사람은 계속 사람들을 데려가 죽였다.
- 2일 전에 윤병원이 자신을 칼로 찔렀다. 도망치지 말라는 뜻인가?
- 갑자기 사라졌다더니, 이런 곳에서 사람을 죽이고 있을 줄은 몰랐다.

-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 이쪽은 전파가 잘 터지지 않는 것 같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열지 않고 내려놓습니다)
윤윤수는 김여운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모릅니다.
- 머리가 어지럽다. 자신은 이대로 죽고 말 거다.

주어를 ‘김여운’으로 할 경우 그의 말이 거짓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현재 그가 김여운은 맞으니까요. 따라서 참, 거짓을 판별할 경우 판정의 난이도를 높입니다.

판정을 사용하지 않고 RP만으로 김여운 몸에 다른 영혼이 들어 있다는 힌트를 주고 싶다면, 아래 사실을 활용해 주세요. (전투가 시작되면 PC가 자연스레 눈치챌 수 있으므로 억지로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1. 김여운은 왼손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보통은 주로 사용하지 않는 쪽 손목에 시계를 차지만, 그가 담배를 집어 든 손(주로 사용하는 손) 또한 왼쪽입니다.
원래 김여운은 오른손잡이, 현재 김여운(윤윤수)은 왼손잡이이기 때문입니다.
2. 김여운은 자신이 가진 핸드폰의 잠금을 해제하지 못합니다.
3. 김여운의 말에 따르면 그는 4일 전부터 지하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윤병원이 사라진 건 2일 전이므로 그가 이 사실을 아는 건 이상합니다.
추궁하면 머리가 아파서 헛갈렸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PC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벽을 살펴보거나, 김여운에게 응급처치를 시도하거나, 창살 밖으로 나가려 하거나.... 창살 너머로 가는 문은 단단히 잠겨 있지만, PC 일행이 힘을 합친다면 부서질지도 모르지요.

어찌 되었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멀리서 쇳덩어리가 벽을 긁으면서 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터벅, 터벅, 드르륵....불길한 예감이 턱끝을 타고 올라올 즈음, 수술복을 입은 사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의 입에서는 짐승의 헐떡임과도 비슷한 의미 없는 소리만 새어 나옵니다. 초록색의 수술복 위로 적갈색 피가 달라붙어, 이제는 본래의 색도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의 한 손에는 쇠로 된 손도끼가 들려 있습니다. 수술복 주머니에 메스가 여러 개 들어 있는지 걸을 때마다 쇠의 파열음이 울립니다. 이성 판정(0/1).

윤병원 병원 원장 윤병원

정신력 50

이성 ? - 정신 이전 주문에 당했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화도 불가능합니다(대인 기능 사용 불가)

근접전(격투) 30 - PC에 의해 도끼를 잃을 경우 메스를 사용합니다. (1D4+피해보너스)

근접전(도끼) 15 - 1D6+1+피해보너스

체력 9 근력 40 민첩 50 건강 50 회피 25 크기 40

그 외 수치는 자유입니다.

아들에게 몸을 뺏겼다가 겨우 되찾았습니다. 다만 정신 이전의 여파로 영혼이 반쯤 부서져.... 이제는 인간이라 부르기 어려울 듯합니다. 피로 물든 수술복을 입고 있습니다.

윤병원은 철창 가까이 다가오더니.... 떨어진 열쇠에는 시선도 두지 않고 도끼로 철창의 잠금쇠를 내리칩니다. 쿵, 쿵, 쿵-! 초점도 맞지 않는 눈으로 도끼 끝만을 바라보며 팔을 휘두르는 그는 광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문이 반쯤 부서지며 열리면 그는 고개를 기묘하게 꺾으며 여러분을 향해 다가섭니다. 전투를 시작합니다.

전투

윤병원, 김여운, PC 모두가 전투에 참여합니다.

김여운은 1라운드에 윤병원을 피해 구석으로 숨으며, 2라운드부터 정신 이전 주문을 시전합니다. 대상은 2라운드 기준으로 PC 중 잔여 체력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시전에는 총 5라운드가 소요됩니다. 즉, 6번째로 김여운의 차례가 오면 주문이 완성됩니다.

김여운은 PC 일행 중 한 명의 몸을 뺏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적은 총 2명입니다. 따라서, 윤병원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어 기절해도 전투는 끝나지 않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플레이어의 반응을 즐겨 봅시다.

김여운의 행동을 막기 위해서는 체력을 0으로 떨어뜨리거나, 근접전 액션을 통해 집중을 흐트러뜨려야 합니다. 성공적으로 제압하고 나면 김여운은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빈사 상태가 됩니다. (자신의 정신을 붙잡기 위해 마력을 더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6라운드까지 김여운을 제압하지 못했을 경우, 주문의 대상과 김여운은 정신력 대항 판정을 합니다. 대상이 패배할 경우 영구적으로 몸을 빼앗깁니다.

라운드별 묘사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1라운드 - 김여운은 필사적으로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곳의 반대 방향을 향해 기어갑니다. 몸을 숨기겠다는 목적인지 한껏 몸을 웅크립니다.

2라운드 - 더 도망칠 기력이 없는지, 그는 불안한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3라운드 - 김여운은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걱정이라도 하는 걸까요?
4라운드 - 김여운이 (주문의 대상)을 꿰뚫어 볼 것처럼 쳐다봅니다.
5라운드 - 김여운이 (주문의 대상)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립니다. 눈도 깜박이지 않습니다.
6라운드 - 김여운이 환하게 웃으며 (주문의 대상)을 쳐다봅니다.

윤병원 김여운 둘 다 전투 불능(사망, 의식 잃음)이 되거나, **PC** 모두가 전투 불능이 되면 전투는 종료됩니다.

전투가 끝나고 나면 **PC**들을 막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들어왔던 복도는 막혀 있었으니, 반대쪽으로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호기심 많은 **PC**가 아까 떨어져 있던 책을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책 - 드 베르미이스 위스테리이스

라틴어로 적힌 신화서입니다. 외국어(라틴어) 판정에 성공할 경우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끔찍한 존재가 뇌를 헤집는 느낌입니다.... 이성이 **2d6** 감소합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는 가죽 표지를 넘기면, 속표지에 포스트잇이 한 장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을 행운의 주인공을 위해 번역본을 몇 장 남겨 둡니다.

-A.

책을 자세히 살펴봐도 영어가 적힌 종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읽고 나서 버렸나 보네요.

복도를 따라 쪽 걸어가면 밖으로 나가는 계단이 보입니다. 엔딩으로 이어집니다.

4. 엔딩

윤병원 병원에 찾아가지 않았다 : **ED.0**

모두 윤병원에게 사망했다 : **ED.1**

누군가 김여운에게 몸을 빼앗겼다 : **ED.2**

윤병원과 김여운을 모두 제압했다 : **ED.3**

ED.0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장기기증 증서니 뭐니, 그런 제대로 된 효력도 없는 문서 따위가 중요한가요. PC는 수상하기 짝이 없는 장소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요. 학교에 가든, 회사에 가든, 집에서 쉬든.... 적어도 가짜 증서에 속아 헛걸음하는 것보다는 가치 있겠죠.

보상: 없음.

PC : 생환, KPC : 생환?

ED.1 윤병원병원장장기기증

PC의 시야가 새빨갈게 물듭니다. 수술복을 입은 윤병원이 절뚝거리며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주머니를 뒤적거리려 꺼낸 메스가 당신을 향합니다.... 수술 시간입니다. 비록 마취제는 없지만요. 당신의 장기, 누군가 잘 쓸 겁니다.

보상: 없음.

PC, KPC : 로스트

ED.2 윤윤수수학학원장육체기증

몸을 빼앗긴 PC는 고개를 푹 숙였다가,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합니다. 복도 전체를 채울 만큼의 큰 웃음입니다. 고개를 든 사람은.... PC가 아닌 윤윤수입니다. 마침내 윤윤수는 건강한 몸을 얻어냈습니다. 온전한 몸을 기증해 줘서 고맙다는 듯, 그가 허공을 향해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이제는 사라지고 없는 누군가의 영혼에게 건네는 인사겠죠.

보상: 없음.

PC : 생환?, KPC : 생환?

ED.3 윤윤수수학학원원상복귀

계단을 따라 밖으로 나가면, 병원의 풍경이 아니라 폐건물들이 잔뜩 보입니다. 대체 윤병원 병원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여러분을 옮겨 온 거죠? ...뭐 어쨌든, 장기를 빼앗기지 않고 돌아갈 수 있으니 잘된 일이겠죠.

경찰을 부르면 여러분 또한 용의자로 조사받습니다. 시체들의 사망 시기와 여러분의 행적을 대조한 후에야 여러분의 혐의는 풀렸습니다. 윤병원이 살해 흔적을 전혀 숨기지 않아서 다행이었죠.

어느덧 쌀쌀해진 바람을 맞으며 여러분은 윤윤수수학학원원장의 장기기증증서를 찢어버립니다. 집으로 돌아가요. 윤병원 병원, 안녕....

보상: 이성치 1d5 회복.

PC : 생환, KPC : 생환

추천 노래 목록

	장면	링크
1	도입	▶ 너는 알까, 내가 달려가고 있다는 걸
2	조사	▶ [회색도시2/City of Mist 2] BGM 08 - Wolves
3	지하실	▶ Killer Calls Sidney
4	전투	▶ The Greed Manifests
5	엔딩(ED.1, ED.2)	▶ Badol Bashimu
6	엔딩(ED.0, ED.3)	▶ La petite fille de la mer (Remastered)

후기

안녕하세요, 오도독더덕뽕밥입니다. 좋은 기회로 '현대 한국 호러 **TRPG** 시나리오 합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최를 맡아 주신 **HD**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목은.... 인터넷 세상 어딘가에서 발견한 문장을 모티프로 삼았습니다. 수확학원 원장과 장기의 조합이라니 흥미롭지 않나요? **CoC**스러운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배경으로 한 호러 시나리오에는 정말 좋아합니다. 오컬트가 엮인 이야기도, 인간이 원인인 이야기도 모두 재밌습니다.... 다만 제가 살아가는 세상이 배경이다 보니 고증을 신경 쓰는 게 어렵더군요. 만약 고증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제 시나리오에서는 이렇습니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CoC** 룰북에서 다양한 요소를 뽑아 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내용이 내용이다 보니 짧고 간단하게 쓰지 않을까? 하고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쓰는 데에 오래 걸렸습니다. 룰북 탐독과 고증 관련 검색에 많은 시간이 들었던 것 같네요....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생긴다면 다음 시나리오로 찾아뵙겠습니다.

후기는 큰 힘이 됩니다. 로그를 공유해 주신다면 기쁘게 받겠습니다.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to: 테스트 플레이와 피드백을 도와주신 타이만메이트 슬채 님.